



# 가당음료세란 무엇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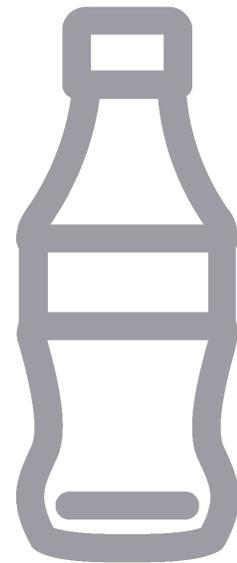
2018년 1월 1일부터 시애틀에서 판매되는 설탕이 든 단 음료에 세금이 부과됩니다. 가당음료세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부과되는 판매세는 아닙니다. 대신 판매자가 시애틀시 내에 유통하는 가당 음료에 부과된 세금을 내게 됩니다. 세율은 온스당 1.75센트입니다.

소비자들은 가당 음료의 가격 인상을 볼 수도 보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. **납세자인 판매자는 이 세금을 유통업체에 떠넘길지 말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유통업자도 이 세금을 소비자에게 넘길 수도 넘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**

## 왜 시애틀시는 가당음료세를 통과 시켰는가?

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탕이 든 음료가 2형 당뇨병, 심장병, 뇌졸중, 체중증가, 충치를 유발한다고 합니다. 설탕이 든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면 이러한 가당 음료의 판매와 소비가 줄어들 것입니다. 또한, 가당 음료 판매로 인한 세수가 증가할 것입니다. 이 세입으로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백인사회가 아닌 곳에서 직면하는 교육격차를 줄이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.

다이어트용 음료, 병에 담긴 물, 100% 주스, 각종 우유(대두, 쌀, 아몬드, 코코넛 우유 포함), 의료용 음료, 유아 및 아기용 유동식, 주류 등의 음료는 가당 음료세 대상에 포함되지 **않습니다.**



### 과세 대상 음료

일반 탄산음료

에너지 및 스포츠  
드링크류

과일 주스

당이 첨가된 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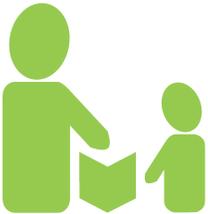
사전에 당이 첨가된  
커피와 차 종류

커피숍, 식당,  
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 
제조하는데 사용되는  
시럽 및 농축액



# 가당음료세로 생긴 세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?

이렇게 거둔 세금으로 각종 영양 및 음식을 적당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. 또한, 조기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 예정입니다. 시 당국은 이 세금정책으로 2018년 한 해에 미화 1,480만 달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. 이 세입은 다음과 같이 할당할 예정입니다.



구분	2018 투자
<b>건강한 음식</b> 건강한 식품을 적절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고, 식량 안전보장 격차를 줄이며, 건강한 영양 선택을 증진한다.	380만 달러
<b>조기교육</b> 0~5세 아동 인구와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, 사회적, 개발적, 교육적 준비 상태와 학습 격차를 감소시킨다.	325만 달러
<b>교육</b> 시애틀 대학 내 13th Year (13학년) 프로그램 등과 같은 대학 입학, 여름방학 학습, 흑인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으로 고등학생을 지원한다.	257만 달러
<b>지역사회 고문 이사회의 권고용 할당</b> 지역사회 고문 이사회는 시장과 시 의회에 해당 금액 사용처를 추천할 수 있다.	277만 달러
<b>평가</b> 이 금액으로 음료세가 경제와 건강 행태에 끼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지원한다.	52만 달러
<b>행정 및 기타 비용</b> 이 금액은 음료세를 시행하는 비용과 이 세금 정책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노동자들의 직업 훈련에 사용된다. 또한 지역사회 고문 이사회를 지원하는 사무직원 비용도 여기에 포함된다. 이 금액은 세금 징수 시스템 수립에 필요한 일회성 비용 120만 달러를 포함한다.	191만 달러

2018/3/28 개정

더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.  
<http://www.seattle.gov/sweetened-beverage-tax>